

# 추석 연휴 강타 '나훈아 신드롬' 이유?... "그런 거 묻지마소!"

'미스터 트롯' 이전에 '가황(歌皇)' 나훈아(70)가 있었다. 올해 추석 연휴 시작과 끝을 장식한 것도 모자라 일상으로 복귀한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나훈아가 대중문화계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 방송된 나훈아의 비대면 콘서트 KBS 2TV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전국 시청률 29%(닐슨 코리아 집계)를 기록했다.

고정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는 KBS 2TV 주말 드라마가 아니면 최근에는 보기 힘든 숫자다.

나훈아의 돌풍은 이어져 이달 3일 밤 방송된 KBS 2TV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스페셜-15년 만의 외출'도 전국기준 시청률 18.7%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의 비하인드 영상 등을 담은 일종의 나훈아 다큐멘터리다.

진실로 통하는 만큼, 확인되지 않은 그에 대한 잘못된 정보도 난무한다.

5일 현재 인터넷 포털에 소개된 나훈아의 프로필에는 1947년 출생, 데뷔곡은 1966년 '천리길'로 적혀 있다.

한국전쟁 이후 대중음악이 걸어진 길을 집대성한 '백판의 전성시대' 저자인 최규성 대중음악평론가에 따르면, 나훈아의 첫 녹음은 1968년 '내 사랑'으로 확인된다.

한국전쟁 시기에 태어난 이들의 출생신고에 오류가 많긴 하지만, 나훈아는 195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훈아에 대한 몇몇의 기본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 퍼져지만 그가 50여년동안 톱 가수 군림해온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무시로' '갈 무리' '잡초' '고향역' '가지마오' 등의 히트곡은 셀 수 없다.

나훈아는 2007년 3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공연을 취소하고 두문불출했다. 그러다 11년 만인 지난 2017년 7월 새 앨범 '드림 어게인(Dream again)'을 공개했다. 동시에 전국투어 콘서트를 열어 매진행렬을 기록했다.

콘서트에서 보여준 기량은 여전했다. 당시 남장남장, 리드미컬한 목소리는 일흔에 가까운 나이를 무색케 했다. 능수능란하게 고음을 넘나들며 객석의 귀를 빨아들였다. 쇼맨십은 아이돌 저리가라였다. 관객의 마음까지 쥐락펴락하는 마법같은 무대는 소문대로 절대고수 '쇼꾼'의 면모였다.

이후 앨범 '벗 2', '나훈아 아홉이야기'를 내

## 코로나19 절망 속 위로 안겨...트로트 언택트 공연 '신호탄'

### 최근 트로트 범람 속 헤비메탈 협업 등 트로트 지평 넓혀

놓는 등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다만 방송 등의 출연은 하지 않다 이번 KBS 추석특집으로 15년 만에 방송 나들이를 했다. '신비주의 끝판왕'으로 통하는 그의 행보에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는 건 당연했다.

#### ◇코로나19 절망 가운데 위로

나훈아가 지난달 KBS홀에서 진행한 공연 상황을 담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관객 없이, 온라인 관객 1000명만으로 녹화를 했다. 서울부터 제주 등 국내는 물론 일본, 호주, 짐바브웨 등 사전 신청한 세계 곳곳의 팬들이 온라인으로 나훈아의 공연을 보는 방식이었다.

특히 나훈아가 콘서트에서 국민들에게 전한 발언은 대중문화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들쭉거리게 만들었다. 코로나19 등으로 뒤숭숭한 시절에 국민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줬기 때문이다.

"옛날의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못 봤다"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다" "(소크라)테스형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 '세월은 왜 흐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더라" "KBS가 여기저기 눈치 보지 않는,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은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조명을 받았다.

"다시보기" '재방송'을 하지 않기로 한 나훈아의 이번 콘서트에서 나훈아는 추가로 요청했다 한다. 자신의 말이 왜곡되지 않도록 편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최규성 평론가는 나훈아의 이번 콘서트에 대해 "나와야 할 때를 제대로 아는 영민한 분"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무엇인가가 결핍돼 있고 이등이 제한된 다른 세상에서 위위가 필요했는데, 딱 감동과 위안을 안기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나훈아가 지난 8월 발매한 새 앨범 '나훈아 아홉이야기'도 코로나19에 위로를 안기는 음반이었다. 앞서 나훈아 소속사 예아라 유종민 대표는 이번 음반에 대해 "반갑지 않은 손님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휘젓고 가까운 사람과

저 선뜻 손 내밀지 못하게 하는 삭막한 세상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는 다치게 내어 줄 수 없다"며 의의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이 앨범 신곡 '테스형'은 콘서트에서도 대단한 화제였다. 그는 콘서트에서 이 곡을 부르고 난 뒤 "(소크라)테스형에게 '세상이 왜 이러냐' '세월은 왜 흐르냐'고 물어봤는데 모른다더라"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테스형'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곡은 자신의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곡으로 알려졌다.

최 평론가는 "원래도 나훈아 노래 중에는 해학적인 것이 많다. 그래서 서민 층이 쉽게 접할 수 있다. 잘난 체 하지 않고 솔직하게 풀어내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들었다.

누구에게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니 나훈아의 이번 추석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훈아는 원래 대중 사이에 '개념 연예인'으로 추앙을 받았다.

과거에 이견의 삼선전자 회장이 유명 가수와 아나운서를 대서 초대했는데, 대중예술가는 개인 아닌 대중 앞에서 공연한다며 거절한 일화도 있다.

이번 KBS 콘서트를 앞두고 상당한 개런티를 받았다는 소문이 잠시 나돌기도 했는데, 실제 나훈아는 코로나19에 국민에게 위로를 주고자 한다며 '노 개런티'로 임했다.

최 평론가는 "특히 노 개런티 이야기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 나훈아는 뭔가 '급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켜줬고 이번 공연을 통해 스스로 자기를 업그레이드했다"고 전했다.

#### ◇내 나이가 어때서

나훈아의 가장과 무대 매너에 대해 일부에서는 불호를 표하기도 한다. 이를 드러내고, 몸짓이 요염해 다소 '느긋하다'는 반응이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객석을 좌지우지하는 가수는 없다는 것은 무대를 본 이들이라면 누구든 공통으로 내놓는 관전평이다.

지난 2017년 복귀 콘서트에서 나훈아의 남장남장, 리드미컬한 목소리는 일흔살에 가까



운 나이를 무색케 했다. 능수능란하게 고음을 넘나들며 객석의 귀를 빨아들였다. 쇼맨십은 아이돌을 저리가라였다. 관객의 마음까지 쥐락펴락하는 그의 마법같은 무대는 소문대로 절대고수 '쇼꾼'의 면모였다.

#### ◇트로트 지평을 넓히다

나훈아의 이번 콘서트 무대 중 '사내'도 계속 회자되고 있다. 메탈 밴드 '메서드(Method)'와 협업은 젊은 록스타 이상의 열기를 방출했다.

최 평론가는 "트로트와 헤비메탈을 매칭해 놀랐다. 이질적인 질감일 수 있는데 나훈아 선생이 헤비메탈에 대한 이해가 있어 자연스러웠다"고 들었다.

사실 나훈아의 음악은 트로트에 한정돼 있지 않았다. 1980년대에 발표한 '잡초' '무시로'는 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최 평론가는 "나훈아스러움에는 '성인 발라드'가 있다. 국악과 접목한 곡도 많았다. 이번 콘서트에서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팡음을 부르는 모습도 명장면"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트로트의 범람 속에서 나훈아가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으며 '트로트가수가 어떻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큰 성과라는 평도 많다.

트로트 가수를 매니지먼트하는 관계자는 "최근 트로트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트로트 장르가 복제를 반복하고 있어 관계자들도 지루해하던 참이다. 그런 와중에 나훈아의 다양한 시도는 새로운 자극을 줬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트로트에 질려 해당 장르에 소화할량을 소화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훈아가 '짤이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나훈아는 클래식 트로트부터 트로트의 장르적 범위를 확대시켰다. 트로트가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실제로 나훈아는 트로트에서 벗어나 '가황'의 면모를 보여준 것도 큰 성과라는 평도 많다.

최 평론가는 "트로트와 헤비메탈을 매칭해 놀랐다. 이질적인 질감일 수 있는데 나훈아 선생이 헤비메탈에 대한 이해가 있어 자연스러웠다"고 들었다.

사실 나훈아의 음악은 트로트에 한정돼 있지 않았다. 1980년대에 발표한 '잡초' '무시로'는 팝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최 평론가는 "나훈아스러움에는 '성인 발라드'가 있다. 국악과 접목한 곡도 많았다. 이번 콘서트에서 기타를 직접 연주하며 팡음을 부르는 모습도 명장면"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트로트의 범람 속에서 나훈아가 트로트에만 머물지 않으며 '트로트가수가 어떻게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도 큰 성과라는 평도 많다.

트로트 가수를 매니지먼트하는 관계자는 "최근 트로트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트로트 장르가 복제를 반복하고 있어 관계자들도 지루해하던 참이다. 그런 와중에 나훈아의 다양한 시도는 새로운 자극을 줬다"고 말했다.

최 평론가는 "트로트에 질려 해당 장르에 소화할량을 소화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나훈아가 '짤이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나훈아는 클래식 트로트부터 트로트의 장르적 범위를 확대시켰다. 트로트가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했다.

## 트와이스, 3년 만에 정규앨범... "오는 20일 데뷔 5주년"

### 26일 발매...5개월만에 새앨범

그들 '트와이스'가 3년 만에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4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는 오는 26일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새 앨범은 지난 6월 1일 미니 9집 '모어 앤드 모어(MORE & MORE)'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그런데 정규 앨범은 2017년 10월 30일 정규 1집 '트와이스타그램(Twicetagram)' 이후 처음이다.

트와이스에게 올해 10월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20일이 트와이스의 데뷔 5주년이기 때문이다.

JYP는 5일부터 9일까지 데뷔 5주년 기념 영상을 공개하고, 트와이스가 팬들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축하할 계획이다.

11일부터 26일까지는 '아이즈 오픈링 위크(Eyes opening week)'로 꾸민다.

새 앨범 티저들을 선보이는 등 컴백 열기를 달군다.

트와이스는 2015년 10월 데뷔곡 '우아하게(OOH-AHH하게)'부터 최근작 '모어 앤드 모어'까지 발표하는 곡마다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특히 '모어 앤드 모어'로 정점을 찍었다. 가온차트 기준, 선주문 수량 50만을 넘어선 데 이어 초동(발매일 기준 일주일 동안의 음반 판매량) 기록도 33만 2416장으로 자체 최고 성적을 세웠다.

타이틀곡 '모어 앤드 모어'를 통해 그룹 통산 106번째 음악 방송 1위를 거머쥐며, 걸그룹 최다 음방 1위 기록까지 새로 썼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사랑을 받았다. '모어 앤드 모어'는 6월 13일 자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 200위에 랭크, 해당 차트에 첫 진입하기도 했다.



## '부캐 대표' 마미손·김다비, 신곡 '순가락 행진곡'

### 두 부캐릭터의 색깔 살린 곡

연예계 부캐릭터의 대표격인 래퍼 마미손과 트로트가수 김다비(개구먼 김신영)가 4일 오후 6시 음원사이트에 협업 신곡 '순가락 행진곡'을 발표했다.

'소년점프'를 통해 원조 부캐릭터로 각인된 마미손과 직장인들의 세태를 풍자하는 '주라 주라'라는 곡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둘째이모 김다비가 뽀쳤다.

케이팝 음악채널 엠넷과 부캐선발대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될 '부캐 선발전'을 통해 공개되는 첫번째 콘텐츠다.

'부캐 선발전'은 가수, 개그맨, 유튜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물들이 자신만의 '부캐'로 등장해 그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매력을 뽐내는 예능 콘텐츠다.



'순가락 행진곡'은 평소 직설적인 노래와 멘트로 사회를 꼬집어 인기를 끌었던 두 부캐릭터의 색깔을 살렸다.

여러 요인으로 인해 힘든 사회를 풍자한 곡으로 성인 합창 동요를 표방한다.

CJ ENM의 엠넷과 갤럭시코퍼레이션의 합작법인인 페르소나유니버스는 "마미손과 김다비의 '순가락 행진곡'에 이어 앞으로 공개될 부캐들의 콘텐츠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스윙스, '쇼미9' 지원자로 나선 이유?... "칼을 갈고 있다"

### 오는 16일 첫 방송하는 '쇼미더머니9' 참가자로 지원

래퍼 스윙스가 엠넷 '쇼미더머니9'에 프로듀서가 아닌 참가자로 지원한 이유를 밝혔다.

5일 오전 방송된 KBS 2TV '조우종의 FM 대행진'에 스윙스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스윙스는 오는 16일 첫 방송하는 '쇼미더머니9'에 참가자로 지원하며 화제를 모았다.

스윙스는 앞서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로서

여러차례 활약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 '쇼미더머니9' 참가 계기에 대해 스윙스는 "지난해 굉장한 화가 났었다"라며 운을 폈다.

그는 "제가 '쇼미더머니' 시즌2에도 참가자로 출연한 적이 있었다. 그때 (제가) 프로그램을 많이 띄웠다. 팩트다. 이후로 프로그램에 계

속 나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7년이 지났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보니 내가 누구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 저에게 되물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선에서 탈락할 거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 그걸 보면서 새로운 시즌에는 무조건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칼을 갈고 있다"고 전했다.

뉴시스

## 'SM어벤져스' 슈퍼엠, '빌보드200' 2위

### 10만4천장 판매

SM엔터테인먼트의 어벤져스 그룹인 '슈퍼엠(SuperM)'의 첫 정규 앨범 '슈퍼원(Super One)'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2위로 데뷔했다.

4일(현지시간) 빌보드닷컴에 따르면, 슈퍼엠이 지난달 25일 공개한 '슈퍼원'은 오는 10일 자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했다.

'빌보드 200'은 전통적인 음반 판매량

에 디지털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TEA(track equivalent albums), 스트리밍 횟수를 음반 판매량으로 환산한 SEA(streaming equivalent albums)를 더해 매긴다.

빌보드는 닐슨뮤직 데이터를 인용, '슈퍼원'이 10만4000장 상당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 중 10만1000장이 전통적인 판매량이다. 빌보드는 마블과 협업해 만든 머천다이즈(MD)가 포함돼 힘을 받았다고 전했다.